

# 여대생의 신체상, 우울 및 스트레스가 흡연동기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 정 민(명지대 조교수) · 정 한 나(명지대 석사) · 김 희 정(명지대 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의 신체상, 우울 및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어 흡연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여대생의 금연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심리치료 장면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하는 2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여자대학생 58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580명 중 흡연을 하는 여대생 184명의 질문지를 분석하였다. 흡연동기를 측정하는 척도는 Spielberger, Jacobs, Crane & Russell(1983)이 개발한 흡연동기척도 (Smoking Motivation Questionnaire : SMQ)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한종철 등(1995)이 제작한 흡연 동기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으며, 신체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Cash(1990)가 개발한 신체-자아의 다차원적 척도(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 MBSRQ)를 조선명(1999)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Beck(1961)이 개발한 척도를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Delongis, Folkman & Lazarus(1988)가 개발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거리 중심의 스트레스 측정척도를 김정희(1995)가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SPSS Win 12.0을 이용한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일원변량분석, Pearson의 상관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흡연행위특성 중 흡연기간, 흡연량에 따른 흡연동기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흡연시작시기, 흡연횟수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여대생의 신체상, 우울 및 스트레스는 흡연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흡연동기는 신체만족도, 스트레스 순으로 설명되었다. 흡연동기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볼 때, 휴식 및 지루함은 스트레스, 신체만족도 순으로 설명되었으며, 지적 자극 및 호기심은 스트레스, 신체만족도 순으로 설명되었고, 사회적 매력은 신체만족도, 스트레스 순으로 설명되었다. 셋째, 우울은 여대생의 신체상과 흡연동기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동기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볼 때, 우울은 여대생의 신체상과 부적정서통제, 신체상과 휴식 및 지루함, 신체상과 습관적 흡연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은 여대생의 신체상과 사회적 매력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우울이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고 있는 여대생의 사회적 매력으로써의 흡연동기를 더 높여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높은 흡연동기를 가진 여대생의 우울을 다루는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이와 함께 흡연을 줄일 수 있도록 긍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대생들이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